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연구

: 울산대흥교회 아동부 적용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방대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9년 5월

Copyright © 2019 Daehyun Ba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Children`s Bible Tongdok
A Case of Daeheung church, Ulsan, Korea

Daehyun Bang

Ulsan Daeheung Churc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o read and teach the Bible to children, based on a Bible Reading program for children aged 5 to 12 who can read Korean in the Children`s Department of Ulsan Daeheung Church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0.

In Korean church Sunday schools in Korea, there is a shortage of time to teach the Bible for children in terms of growth-oriented education. This negatively affects the growth of children's faith, especially in the field of church education, Bible education is given less than half an hour of lessons in Sunday school lesson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applied Cho Byeong-ho's whole Bible reading to children's Bible reading and studying. Cho Byeong-ho's whole Bible reading of the Bible helped children study the whole of God and the Old Testament, not partial Bible education. It wa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the children to know, learn, and experience God's heart by studying the entire Bible.

In particular, children are influenced by the media and influenced by games and the Internet. They are also influenced by school education. As children are affected through the environment such as churches, families and family tables, I have studied this paper, hoping to grow into believers who overcome sin and overcome the world by reading the Bible from childhood.

국문초록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연구
울산대흥교회 아동부 적용 연구

방대현

울산대흥교회, 경남 울산광역시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울산대흥교회 아동부에서 <성경 1독학교>라는 타이틀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의 교회학교 어린이 교육을 보면 성장중심의 교육 위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신앙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특히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성경교육은 주일 공과학습 30분 미만의 교육이 전부인 실정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병호의 통성경읽기를 어린이 성경읽기 및 공부에 적용하였다. 조병호의 통성경 읽기는 어린이들에게 부분적인 성경교육이 아닌 신,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공부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미디어의 영향으로 게임과 인터넷의 영향을 받고,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가족 식탁 가운데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의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통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이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목차

감사의 글	viii
표 목차	vii
I. 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어린이와 문화이해	3
기술문화 속의 어린이	3
학교교육 속의 어린이	6
가정에서의 어린이	8
가족 식탁에서 어린이	11
III. 통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통독	14
통성경이해	14
통시적 공시적 관점	20
통으로 보는 개인·가정·나라	21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22
통성경 스토리텔링	23
5세부터 성경읽기	26
IV. 어린이 성경통독의 근거	30
어린이 성경통독의 성경적 근거	30
어린이 성경통독의 신학적 근거	31

어린이 성경통독의 목회적 근거	35
V.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에게 적용한 통 성경 읽기.....	37
통성경을 통한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의 변화.....	37
주일 아침 프로젝트 순서	41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 성경교육	42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바이블 통 트랙스 7	47
VI. 결론	57
요약 및 결론	57
부록	60
참고 문헌	78

표 목차

<표 1>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 / 20마당/ 40개 줄기	18
<표 2> 어린이 성경통독 교재 커리큘럼	42
<표 3> 청소년 성경통독 교재 커리큘럼	43

감사의 글

먼저 바쁜 생활의 환경과 시간과 여러 가지의 여건 속에서 ‘과연 내가 드루 대학에서의 목회학 박사의 과정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있었지만, 그토록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황의 시간과 환경의 여건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 어느 날 미국 드루 대학 입학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부족한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나로서는 더 더욱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대류대학의 목회학 박사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하였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나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으셔서 나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무릎을 꿇고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

드루 대학의 목회학 박사의 과정은 나의 꿈을 발돋움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을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말씀으로 훈련하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시야의 폭 넓이가 넓혀지는 계기가 되어, 목회자로서의 나에게는 하나의 모양과 틀을 만들어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감사하다.

드루 대학의 목회학 박사 과정의 논문을 쓰기 위한 학문을 지도해주신 조병호 박사님, 논문의 방향과 틀을 잡아 주고,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 성경내용을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대로 영화처럼 그려지듯이, 이야기로 깊은 웅덩이 물을 길어 올리는 듯한 나의 목마름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드루 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땅에 제가 존재하고 저를 목회자의 길로 걸어 갈 수 있도록 물신

양면으로 키워주시며,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아들을 위해 늘 항상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목회의 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와 바램 들이 이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늘 주의 종으로 섬겨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늘 감사 드린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사위를 위하여 늘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몇 시간 전에도 저에게 “방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 방 목사님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할게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방 목사님 목회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던 장인어른의 말씀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고 늘 눈물로 기도의 낙타 무릎이 되어 밤이고 낮이든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시는 장모님의 기도로 이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게 됨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인 사랑하는 딸 예은이를 주심에 감사 드리며, 사랑하는 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은이를 통해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너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다. 이번 아빠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너와 같은 연령대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 기쁘고 사랑하는 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별히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아내...주님을 위해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의 동반자 배진영 사모에게 나의 목회의 길에서 안과 밖의 내조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목회와 목회학 박사의 과정을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갈비뼈를 떼어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당신과 같이 걸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평생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한다.

2019년 3월

천국에서 가장 큰 어린 영혼을 위하여

방대현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린이 성경 교육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주일학교에서 시행되는 공과 공부는 단편적 성경 지식의 전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경 전체를 가르치려는 노력은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은 어린이 성경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이 우선 시 되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와 게임의 영향은 어린이의 성경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어린이의 성경 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 교육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성경 교육의 회복 할 것인가? 연구자는 본 논문이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어린이 성경 교육의 부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교회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위한 성경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 보고 그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인생의 큰 그림은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의 큰 그림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린이 성경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또한 백지장과 같이 깨끗한 어릴 때부터 성경의 큰 숲을 봄으로 인해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지명, 사건과 배경, 주제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한 눈에 살펴 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성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 조병호의 통 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교육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성경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방법론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의 부합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장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2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성경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문화와 학교교육, 가정 그리고 가족식탁에서의 상황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조병호의 통 성경을 통한 통 성경 이해와, 통시적 공시적 관점, 통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어린이 성경 통독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 그리고 목회적 근거를 살펴본 후, 5장에는 울산 대흥교회에서 실시한 성경통독 프로그램인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를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6장에서 결론과 요약하려고 한다.

제 II 장

어린이의 문화이해

기술문화 속의 어린이

무엇보다도 오늘날 어린이들은 기술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보급은 어린이들의 삶에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은 오락, 게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가족과 주변 그리고 소통을 단절 시킨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8개국을 조사한 결과 9~16세 중 4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6~13세 어린이의 51%가 스마트폰을 소지한다고 한다.

더글러스 젠틸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 며, “스마트폰 사용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¹고 지적했다.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아시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 학회지 '컴퓨터스 인 휴먼 비헤이비어(Computers in Human Behavior)'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11~12세)의 72%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을 스마트 폰을

¹ 박의명, “전세계 어린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매일경제*, 2017.12.15.

보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 평균인 3.8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많다. 대만에서는 11세 어린이 중 45%가 스마트폰을 보유해 유럽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15세가 될 무렵에는 71%가 스마트폰을 보유해 사용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²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린이의 시기는 두뇌의 성장에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두뇌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손현정의 <우리아이 두뇌교육 10살 전에 끝내라>, 가계야마 히데오의 <공부습관 10살 전에 끝내라>, 엘리사 메더스의 <아이의 뇌세포를 춤추게 하라> 에서 주장하는 10세 즉 어린이 시기의 두뇌교육의 중요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살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때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주도적 활동하기, 학급회의 등 모임 주관하기, 학교의 각종 모임 참여하기 등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한다. 고학년의 시작인 4학년이 되면 더욱 심화되고 어려운 인간관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알아가기를 시도하는데 이때부터는 기본적인 인성의 작용이 이미 고착화된다고 본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전에 비해 인성교육이 더욱 힘들게 되고 효과도 미비하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는 속담이 있듯이 인성 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 아이들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시기에 부모와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고, 산책하며 놀이를 즐기는 아이와 부모의 무관심 속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을 하거나 대화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의 미래는 차이가

² Ibid.

있을 것이다.

간혹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자유”와 “방임”, “책임”과 “방종”은 다르다. 아이에 대한 방임과 방종은 그저 무관심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이 부족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면 사회적 부모로서 자신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게임이 바로 여기 속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여기에 말초적 흥미를 자극하는 게임은 어린이들의 중독의 상태로 몰아간다. 이와 함께 공격성의 증대, 경쟁의식과 환상의 영향 등이 기술문화의 폐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사고와 영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을 이러한 게임의 악영향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익한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게임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그 예로 게임을 성경학습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면 게임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³고 했다. 이는 그의 주장처럼 기술문화

³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9), 167.

속에서 성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술문화 속에서도 성경교육은 어린이들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 속의 어린이

한국 가정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교육은 경쟁적이며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을 위한 지식습득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회는 학교교육의 영향에 무방비 상태인 어린이들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 되어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들이 삶의 바른 궤도를 발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변하도록 교회가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 가운데 교회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본질이 보존 되어야 하므로 교회교육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타벅스가 커피 이외에 다른 사업에 몰두하다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맞이 할 미래일 것이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한때 스타벅스의 커피는 커피의 판매에 치중하기보다 각종 캐릭터

상품 등에 치중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있었다.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은 전 스타벅스의 회장이었던 하워드 슐츠가 ‘다시 커피로 돌아가자’ 라는 외침을 통해 회복 될 수 있었다. 커피점은 커피점일 때 그것이 가장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⁴ 라고 하면서, 교회 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을 전도하여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로써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물론 어린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웃의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즐겁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만일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이나, 본이 되신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작은 행동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친구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일,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다. 이 때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평안함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받은 기쁨과 행복.

⁴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0-31.

열정 그리고 행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학교로 간다면 학교는 점점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적인 동의라는 정적인 행위로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분을 따르라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라고 하신다. 열정, 의미, 이미지, 경험, 복음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는 복음 전도자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⁵

스윗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머리로는 믿으나 몸으로 실천하여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고백 하신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배워 작은 예수로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어린이

출산율의 격감으로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늘고, 어린이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의 책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위기의 책임은 우선 부모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⁵ Ibid., 31.

가정에서의 자녀를 위한 성경교육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맡긴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교회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교회에서의 성경교육도 결코 성공적 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공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어린이들의 성경 교육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대부분이 교역자의 설교말씀이 전부이고, 후에 분반공부를 통해서 성경교육의 전달학습 형식이 30분을 넘지 않는다. 매우 제한적인 시간에 성경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사의 일방적 전달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맥락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린이 성경교육이 단지 교회에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을 통하여 가정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⁶ 신앙교육의 틀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신앙교육을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신앙교육의 장소로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영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009년 출간된 ‘가족목회의 관점들 : 세 가지 견해’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 Three Views)에서 폴 렌프로는 ‘가족통합목회’를 가장 바람직한 목회라고 했다. 그는 신명기 31장 12절의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⁶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국민일보, 2012.09.03.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모든 집회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⁷

현용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교육해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전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

이는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도덕적 기준의 몰락의 시대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현용수는 가정교육의 실마리를 쉼마 교육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직적인 전도는 대부분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직적인 전도는 가정에서 부모가 혈통적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육이다.”⁹ 유대인들의 가정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수직적 전도의 바람직한 예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사명이 된다. 때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20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남

⁷ Ibid.

⁸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3), 74.

⁹ Ibid.

유대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성경의 바울과 디모데 역시 값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 다윗 왕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였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성경을 선물했다.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

가족 식탁에서 어린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서 식탁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찌 보면 학교 공부와 학원 등 바쁜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저녁 식탁에서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족식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김영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가족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은 신앙교육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족개념이 성경적 의미와 범위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가족개념이 회복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제 그 회복의 장소는 가족식탁이어야 한다. 가족식탁은 구원, 사명, 소망을 재 실현화하는 신앙교육의 모판이기 때문이다.¹⁰

유대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이자 자부심이었다. 특별히 식탁에 둘러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묻고 대답을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 모습이었다. 김영래는 구약성경과

¹⁰ Ibid.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식탁교육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그리고 가족식탁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확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환대를 실천하며,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한다.

이는 첫 번 유월절의 식탁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육의 기회라 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성만찬을 가족의 범위를 넓힌 가족확장의 교육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 다가 오지 않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은 소망의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식탁이라고 하였다.

김영래는 “가족, 식탁, 이야기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개별적 개체가 아니다. 각각의 음표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가족의 확장은 가족의 회복이다.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은 발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¹¹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자신, 가족을 포함한 이웃과 자신,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정리하면서 김영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 노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식탁은 그 자체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애굽을 떠나던 마지막 밤의 구원의 식탁이야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명의 식탁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했던 소망의 식탁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한다. 정겨운 가족,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이야기가 신앙으로 성숙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²

¹¹ Ibid.

¹² Ibid.

그러므로 가정의 식탁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성경적 가정 신앙교육을 복원하는 길이다. 또한 성경에서의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히브리 가정에서 가장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유월절 식탁에서 가장은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켰다. 그러므로 “가족식탁이란, 가족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장소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 식탁을 어린이들의 성경교육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해야 한다. 만일 이 노력이 열매를 맺어 가족 식탁이 성경교육의 장소가 된다면 마치 히브리인들처럼 가정에서의 성경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¹³ 라는 주장을 명심해야 한다.

¹³ Ibid.

제 III 장

통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통독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교육의 일환으로 통성경을 통한 성경통독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우선 통성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성경 이해

조병호는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이야기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성경통독의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교훈을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¹ 라고 했다. 따라서 매일 매일 한 절 한 절 또는 한 장씩 묵상하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전체를 통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즉 한 절 한 절로만 획득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조병호는 “통(通)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常數)이며,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정,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²라고 말한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때 포스트모더니즘라는 표현을 한다. 이는 과거에 사회를 통합시키던 거대담론이 더 이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는 중심성 해체적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일방적 틀에서 벗어난 탈 이성적 탈 합리적 사고의 가치를 인정한다. 때문에 절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증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통(通) 개념은 다양한 현상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조병호는 통(通)을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으로 간주하고, 통(通)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³

조병호가 발전시킨 통(通)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통독은 통(通)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通)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²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7), 142

³ 김한성, “통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9.

다양한 관점들은 서로 상보적,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성경통독을 통하여 획득된다. 성경을 부분과 조각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관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할 때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통(通)성경을 통해 통(通)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으로 읽고 보는 방법이 다양성의 시대에 통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러면 통 성경에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가? 조병호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의미이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사실의 내용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입과 손을 빌어 기록하신 본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⁵

이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병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배열하고,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40개 줄기 스토리로 정리하였다. 성경통독의 목적과

⁴ Ibid.

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49.

의미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앞서 통(通)신학의 방법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경은 전체 만을 또는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을 파편화된 부분적인 내용(나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숲)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⁶

이를 위해 성경은 통(通)의 방법론으로 읽어야 한다. 조병호가 지적하듯이 지금까지의 서구의 경전을 읽는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이었다. 반면 동양적인 성경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방법은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을 통(通)으로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⁷

첫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⁸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각 권을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서구의 분석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전체적 시각보다는 부분적 시각을 가져왔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고 의미를 깨닫지 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해 보이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읽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성경의 연구와 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래서 조병호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할 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⁶ Ibid., 50.

⁷ Ibid., 51.

⁸ 조병호, *유대인파 페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2.

이야기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 조병호는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⁹ 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고,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구약 39권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5권, 예언서 1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배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권이 가지는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고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고 배열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20마당/40개 줄기

역사 순 배열	20마당	40개 줄기
창세기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10:10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 선교의 꿈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민수기 10:11~36장, 신명기, 시편 90편	3마당: 만나 세대	7과 만나 세대 8과 만나 학교 졸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마당: 신앙 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사무엘상·하, 역대상, 시편, 열왕기상 1~2장	5마당: 천년 모범	12과 미스바 세대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⁹ Ibid.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시 72, 127편,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20장, 역대하 10~32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사야, 미가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17과 북 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21~25장, 역대하 33~36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예레미야애가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18과 남 유다 멸망 19과 잠간의 징계
에스겔, 다니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에스라, 시편 119편,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10마당: 재건 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23과 성벽 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신구약 중간사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마 1~4장, 막 1장~3:19, 눅 1장~6:19, 요 1~2장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 5~19장, 막 3:20~10:31, 눅 6:20~19:10, 요 3~11장	13마당: 한 영혼 사랑	28과 공생애 3년
마 20장~27:31, 막 10:32~15:20, 눅 19:11~23:25, 요 12장~19:16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29과 마지막 일주일
마 27:32~28장, 막 15:21~16장, 눅 23:26~24장, 요 19:17~21장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12장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3~21:16, 데살로니가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1:1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요한계시록	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통시적 공시적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통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성경의 관점이다.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1,500여 곳의 공간을 통으로, 그리고 그 안에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¹⁰ 라고 한다.

먼저 시간을 바라보면 성경은 ‘태초’ 부터로 시작하여 ‘종말’ 에

¹⁰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 과 ‘끝’ 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여 년의 시간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000여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의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서 ‘보여 줄 땅’ 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약 1,500 여 곳에 이른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인간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인간들로 나눌 수 있다.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사람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 성경이다.¹¹

통으로 보는 개인·가정·나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과 가정, 나라가 어떻게 이야기로 얽혀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 개인에게 일어난 일 임에 분명하다. 이 때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태우고, 누나는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갈대 상자의 망을 보았다. 어찌 보면 서로서로 뜻이 잘 맞고 화목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런데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민족은 이루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던 가정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¹¹ Ibid.

예수님 이야기 속에도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발견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개인 이야기는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다. 여기에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를 받았던 가정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까? 그것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돌아 가서 호적을 등록 하라고 명령 했기 때문이었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성경 속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으로 보는 것이 통 성경이다.¹²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20: 2)는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나라이며, 다른 제국들처럼 이웃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법은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영의 큰 그림 속에서 제사장 나라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제국들과의 관계를 사용하시면서 역사를 이어 가셨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를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앗수르 제국,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할을 담당한 선지자들을 통해

¹² Ibid.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신약성경 속에 나오는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임으로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관계를 함께 보지 못한다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 성경이다.¹³

통성경 스토리텔링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과 더불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여보자. 김영래는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실현하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연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로 세상을 배운다. 바로 이 이야기의 구연이 스토리텔링이다.”¹⁴ 라고 하였다. 사실상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의 뜻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실제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김영래가 인용하듯이 Avery Willis는 “많은 구술학습자들은 읽을 수 있지만 구술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만일 그들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구술이라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빈번히 구술의 방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고 했다.¹⁵

그렇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있고, 스토리텔링으로

¹³ Ibid.

¹⁴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년), 152-153.

¹⁵ Ibid.

전달되어왔다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 준다. 주일학교 시절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에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려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히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다짐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제적 교훈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야기는 분명한 성경교육의 결과를 도출해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글이나 문자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김영래는 “풍부한 의미를 품고 있는 이야기에서 글과 문자로 탈바꿈한 성경은 안타깝게도 의미의 보존이 아니라 의미의 축소의 길을 걸어 왔다. 성경이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성경 이야기는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가야 한다.”¹⁶ 고 주장했다. 성경을 통으로 보려고 할 때 분석적 사고와 전체적 사고의 유기체적 통합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석과 통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이며 이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성경읽기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면서 이루어졌다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통

¹⁶ Ibid.

성경을 적용한 스토리텔링은 성경의 전체를 이해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통 성경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요셉의 인생 1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었던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우주 만물과 대자연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당시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길 원하셨다.

이어서 그의 인생 2막이 바로 30세까지 살았다면, 그 후 80년의 삶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만의 민족을 이루었고, 먼 장례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훗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70일 간이나 애굽의 국장으로 치르는데, 이는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장지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출애굽의 예행연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부분을 꿈꾸게 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끝 부분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요셉의 유골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경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그들로 하여금 흥미와 감동을 더하게 해 준다. 이처럼 성경의 스토리텔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요절 몇 구절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요절 몇 구절이 아닌 성경전체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5세부터 성경 읽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5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를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면서 신앙을 전해주었다. 히브리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개인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5세부터 어린이들은 모세 5경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 이 때 과연 5세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어린이들의 개별적 지적 능력에 따라 성경의 이해 정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조병호도 “물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능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연령적 시기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와 이해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야기로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의 시기에도 가능하다.”¹⁷ 고했던 것이다.

¹⁷ “또 그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신 11:19).

일반적으로 5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야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역으로 보면 이것이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성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가 종종 발견된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 만일 그렇다면 조병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시기에서부터 청년이 되는 5세에서 20세 사이에 성경을 통으로 읽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5세 아이에게 성경 통독 가르치고, 10세 때 성경의 역사를 알고, 15세에 하나님 행하신 일 설명하며, 20세에는 구속의미를 강의한다면 그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떨까?”¹⁸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고 소화하여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세대를 세우기 위해 통성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통독 대중화 앞장선 조병호는 “성경 66권을 덩어리 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다.”¹⁹ 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을 어린이들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성경은 조병호의 말처럼 역사 순으로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는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살도록 해야 한다. 성경 말씀의 달고 오묘함에 빠지게 되면 성경이 알려주는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위로를

¹⁸ Ibid.

¹⁹ 백상현, “목회” 국민일보, 2017.12.12.

주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안식과 기쁨을 주는 성경은 우리 자녀의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어린이의 심령을 적셔주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야 한다.

통성경 스토리텔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이야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로 들려질 때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나폴레옹은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 김영진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은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²⁰ 라고 했다. 독서가 나폴레옹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 66권은 십자가 라는 이야기의 원 스토리 인데, 천지창조부터 사도 요한의 밧모섬 이야기까지 성경을 굵은 줄기로 보아야 한다” 고 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속의 인물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고 했다.²¹ 때문에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는 5세부터 시작해서 20세까지

²⁰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191.

²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14-15.

통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병호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으며, 인간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더 나아가 성경의 핵심이야기를 우리 후손에게 전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병호의 결론은 신앙전수의 중요성이다. 그는 “5세부터 20세까지는 성경 교육의 황금기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성경을 하루 1시간씩 읽는다면 1년에 10번을 읽을 수 있다”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성경을 5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500년 전 종교 개혁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²²

아울러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라를 배워나갔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 받았으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5세부터 20세 까지 성경을 통으로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신앙계승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²² 백상현,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게 전승하는 지름길” 국민일보, 2017.12.12.

제 IV 장

어린이 성경통독의 근거

어린이 성경통독의 성경적 근거

성경 속에서 어린이의 역할과 위치는 어떠했나? 성경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어린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 한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에 다니엘도 빠질 수 없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킨 어린이로 기록되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성경 교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드라마에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했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신약성경에서는 디모데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울에 의하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모친이었던 유니게와 할머니인 로이스로 통해 신을 배웠다고 기록되어있다. (사도행전 16:1-3) 루스드라에서 나고 성장한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에서 행한 극적인 사역과 기적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길가에 버려진 것과 많은 폭동도 목격했을 것이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성장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루스드라와 근처 이고니온에 사는 신자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가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굳어졌다. 조병호는 디모데는 이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즉 다섯 살부터 요절이 아닌 성경의 큰 그림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구약 39권을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 끝까지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마음에 품었다. 그가 품은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둘째는 나라의 이야기를 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 결국 디모데는 성경을 배움으로 모든 민족의 기초가 되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결단과 실행의 초석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성경의 수 많은 인물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던 인물이다.

어린이 성경통독의 신학적 근거

신학적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김영래는 첫째,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며, 성숙이 필요로 하는 미숙한 존재라고

했다.”¹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여기에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린이들이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악마의 손에 붙잡힌 존재이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어린이는 죄인이고, 미숙한 존재이면서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진 무궁한 존재라고 말했다.² 이는 실로 역설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품에 품으셨던 예수님과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린이를 순수한 영적 존재로 결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어린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어린이가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독자적 발달과 성장의 시간과 영역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³ 이는 어린이의 시기가 단지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이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선입관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영래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모습을 통해 어린이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들만의 환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김영래는 Donald M. Joy가 언명한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다움의 신앙을 확증하고, 전적으로 기독교인다운 전통과 가치

¹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93-96.

² Ibid.

³ Ibid.

그리고 신앙과 사람의 모습에 입각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⁴ 것을 다시 강조했다.

넷째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부모의 전물이나 소유물, 또는 상인들의 상업적인 도구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⁵ 일차적 돌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신명기 6:6-7의 말씀에서 밝히듯이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⁶

다섯 번째로 “어린이는 신앙공동체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⁷ 때문에 어린이는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조직이므로, 혈연관계를 뛰어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신앙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영래는 찰스 포스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앙공동체는 본질적으로 (1) 세대 간을 연결시키고 (2) 동반자 관계를 육성하며 (3) 낯선 사람들을 이웃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⁸ 고 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돌보는 영적 가족으로 신앙공동체는 어린이의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친밀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연결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신앙공동체가 어린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⁴ Donald M. Joy, “Why Reach and Teach Children,” in Robert E. Clark, Joanne Brubaker, Roy B. Zuck, and Zuck Brubaker,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86), 13.

⁵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99.

⁶ Ibid.

⁷ Ibid.

⁸ Charles R. Foster, *Education Congregation: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62-67.

신앙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학적인 의미와 어린이가 어린이답다는 것은

(1)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있는 존재이며 (2) 어른과 구별되고 독자적인 발달과 성장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 존재이고 (3) 부모에게 부여된 일차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4)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이다.⁹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욕심과 독선에 의해 자신들만의 시간과 장소를 빼앗긴 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교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린이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린이 시기의 소멸”과 “성장을 재촉 받는 어린이” 증후군의 피해자로 전락한 어린이를 구출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¹⁰

이를 위해 어린이를 교회목회의 구조 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 하고, 그들이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를 돌보는 이들이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교훈과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 목회를 위한 전문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린이들이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하며, 어렸을 때부터 신학적인 체계도 잡아줘야 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⁹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93-96.

¹⁰ Ibid., 101-102.

어린이 성경통독의 목회적 근거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는 무엇일까?

아래의 성경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야 할 목회적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준다.

120세가 된 모세는 그의 생을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간절하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가나안 입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더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게 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존귀하다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모세가 순종한다. 우리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누군가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부탁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친다. 만나 세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이다. 모세는 이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말씀 훈련이었다.

다윗은 70세에 삶을 마감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받으셨다. 대신 그의 아들 대에 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여호와와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아름다웠으니 너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져 놓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의 비전이 된 것이다. 다윗은 열심히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지킬 것을 말씀하였다. 20세가 된 솔로몬이 힘에 버거운 나라이겠지만 솔로몬에게 20세까지 말씀 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이다.

또한 신약에서 60세를 바라보며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도바울에게도 마음 한 켠에 간절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서머나를 가고 싶어서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당대에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한다. 나의 끝이 너의 시작, 곧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님의 아름다운 끝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 진정한 목표가 되었다.¹¹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의 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 그리고 바울에게 땅 끝 서머나를 향한 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남은 꿈은 유언이 되어 여호수아, 솔로몬, 디모테의 놀라운 비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중에 남길 유언이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다음세대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들의 세대를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꿈이 어린이들의 꿈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독시켜야 하는 목회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세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시작 시기에 해당이 된다. 유대인의 가정이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것이다. 어릴수록 성경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20세 이후에 생업과 사회생활의 시기가 왔을 때 그들이 자라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¹¹ 조병호, *신문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0), 49;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111.

제 V 장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에게 적용한 통성경 읽기

통성경을 통한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의 변화

울산 대흥교회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중·대형 교회로 해당된다. 조병호의 통성경 어린이 성경통독을 울산 대흥교회에서는 ‘어린이 성경 1독학교’ 라는 명칭으로 적용하였다. 어린이 통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누구보다도 먼저 필자인 나에게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을 정독하고, 조병호의 ‘어린이와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 를 연구하면서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역사 순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한 주간 가정에서 읽어야 될 분량의 과제를 내어 주면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교사들의 변화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던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울산 대흥교회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니” 라는 말씀을 모티브로 삼고 성경 읽기 교육을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전달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내용이 쉽지 않고, 분량이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필자에게 이를 위한 길을 안내해 주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울산 대흥교회에서는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 통독 교제와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를 사용하였다. 어린이 1독학교의 시작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주제를 나누어 읽게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읽지 못한다면, 집에 돌아가 읽게 하는 성경 읽기 훈련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4박 5일로 진행된 신·구약 성경 통독이라는 명칭 아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통 성경을 읽게 하고,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지도하였다.

어린이 일독학교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집에만 놓아두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잠시 읽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예배를 중요시하고 주일 성수를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부모가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TV 드라마와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필자는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통하여 ‘일 년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은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개최를 한다니 귀찮아하는 모습도 보였고,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방안을 몰라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에 성경통독에 관심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경읽기를 하지 못하고 지루해 하고, 10분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 곳곳에서 어린이들의 자세가 몸을 비틀거나 누워 있거나 한숨을 들이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이들을 격려하며 역사 순으로 성경읽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 후 1여 년이 지났을 2010년 1월 즈음하여 어린이들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성경통독과 청소년 성경통독에 나오는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차 서서히 성경 읽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즈음 신·구약 성경통독을 처음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4박 5일 간 식사 시간 외에 계속 성경통독이 진행이 되자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성경통독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본문을 눈으로만 따라 읽게 되면 힘들고 졸음도 오기 때문에 색연필이나 형광펜을 주어 성경의 글을 선으로 긋거나 색을 칠하도록 하였다.

성경통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그 시간이 비록 낭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조금씩 차츰차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숨 소리와 몸을 비틀거나 누워있는 아이들이 말씀 읽기에 집중하며 성경 말씀에

색칠하거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몇몇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함께 읽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가정도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성경일독 읽기 표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읽은 분량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연계되어 성경통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통독은 글을 쓴 필자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성경읽기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해주었다.

필자는 여덟 살인 어린 딸에게 성경읽기를 권유하여 읽기 시작했지만, 성경을 마지못해 읽어 나갔다.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통독 교재를 가지고 창세기 1장 부터 시작으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발음도 어려워 천천히 띄엄띄엄 읽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것과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읽기를 지속하였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런 딸에게 지혜를 주심을 발견하였고, 성경통독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런 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주일학교 공과공부 시간 30분이 한 주간 성경공부의 전부였던 딸이, 아빠를 따라 성경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를 알고,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주일 아침 프로젝트 순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통독>과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를 바탕으로 대흥교회 아동부는 주일 아침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매 주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매 주간 정해진 범위를 과제로 읽어 오고, 강의를 들으며 진행되었다. 2009년 1월 첫 주부터 <어린이 성경통독> 교제를 통하여 30주 동안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2009년 가을 즈음에 3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성경 1독을 통독하고 수료하게 되었다.

이어 나오는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 성경교육에 나오는 <표2>는 2009년 1월 당시 사용하던 커리큘럼 진행이다. 그리고 9월인 가을부터 사용한 커리큘럼은 조병호의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를 바탕으로 42주에 걸쳐서 진행된 커리큘럼이며, <표3>를 참조하면 된다.

어린이 성경통독 교제와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의 차이점은, 어린이 성경통독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 되어지는 성경공부이고, 청소년 성경통독 교제는 심화학습에 해당되어진다.

<표2>와 <표3>에 나오는 성경읽기 분량을 한 주간 읽는 것을 목표로, 매 주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1시간 30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통독과 청소년 성경통독 지도자 지침서를 바탕으로 강의를 한 주간 준비하고, 여덟 명의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한 주간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확인하였다.

필자 또한 교제를 보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했던 주제 위주의 계단 공과학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으로 읽고, 눈으로 봄으로 인해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1독학교를 통한 영향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김민현 어린이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대회 성경경시 부분에서 금상을 받고, 영남어린이대회 금상, 그리고 전국어린이 대회 성경경시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 김민현 어린이의 수상이력에 있어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로는 성경을 단순한 읽기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공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 성경교육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2년 여간 적용 어린이 성경일독학교는 <표2>에 따른 커리큘럼으로써 진행하였다. 어린이 성경1독학교의 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이다. 주 교재로써는 조병호의 통 성경 어린이 성경통독과 청소년 성경통독으로 채택하였다. 울산대흥교회의 어린이 성경1독학교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표2> 어린이 성경통독 교재 커리큘럼-2009년 1월부터 30주간 진행

스토리 1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기 1-11장
스토리 2	엄마, 아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세요. 창세기12-36장
스토리 3	믿음 Up grade 창세기 37장-50장
스토리 4	신문에 나온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37-50장
스토리 5	하늘보석 출애굽기 13-40장
스토리 6	거룩 공부하기 레위기
스토리 7	모세에게 배운 성경공부 민수기, 신명기
스토리 8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 여호수아
스토리 9	사막의 오아시스 사사기, 룻기
스토리 10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8장
스토리 11	처음엔 멋있었는데 사무엘상 9-31장, 역대상1-10장
스토리 12	왜 ‘다윗’ 일까요? 사무엘하, 역대상 11-29장, 시편
스토리 13	이스라엘 왕 이야기 I 열왕기상, 열왕기하 1-14장,

	역대하 1-25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스토리 14	이스라엘 왕 이야기 II 열왕기하 15-20장, 역대하 26-32장, 이사야, 미가
스토리 15	이스라엘 왕 이야기 III 열왕기하 21-24장, 역대하 33-36장,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
스토리 16	아름다운 노래 잠언, 전도서, 아가, 율기
스토리 17	벌서는 시간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에스겔
스토리 18	10대에 꼭 읽어야 할 책 다니엘
스토리 19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에스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스토리 20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시간 말라기
스토리 21	어린이 Let's Tong! 친구약 중간사
스토리 22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
스토리 23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
스토리 24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스토리 25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
스토리 26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제자 사도행전 1-12장
스토리 27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기쁨 사도행전 13장-21:16,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스토리 28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사도행전 21:17-28장,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스토리 29	위로와 격려의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스토리 30	하나님 사랑해요 요한 1,2,3서, 요한계시록

<표 3> 청소년 성경통독 교재 커리큘럼-2009년 9월부터 42주간 진행

판 하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판 둘	왜 10대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판 셋	역사 순서 성경통독(구약)
판 넷	구약성경 길라잡이
판 다섯	창세기 시작
판 여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판 일곱	인류 최초 여인의 웃음, 사라 그리고 이삭
판 여덟	야곱과 열두 지파의 시작
판 아홉	요셉 특강 1
판 열	요셉 특강 2

판 열 하나	모세 이야기
판 열 둘	하나님의 러브레터 레위기
판 열 셋	모세 특강 - 신명기
판 열 넷	여호수아와 전쟁사
판 열 다섯	다섯 CEO의 든든한 친구 “갈렙”
판 열 여섯	사사시대
판 열 일곱	보아스 미팅
판 열 여덟	사무엘 특강
판 열 아홉	다윗과 시편
판 스물	다윗에게 배우는 정치
판 스물 하나	평신도 다윗
판 스물 둘	CEO의 책사 “후새”
판 스물 셋	솔로몬과 르호보암
판 스물 넷	남왕국과 북왕국으로의 분열
판 스물 다섯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들과 선지자
판 스물 여섯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선지자
판 스물 일곱	북왕국 이스라엘과 앗수르 제국
판 스물 여덟	남왕국 유다와 바벨론 제국
판 스물 아홉	아홉 페르시아 제국
판 서른	다니엘 특강
판 서른 하나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중간사
판 서른 둘	역사 순서 성경통독(신약)
판 서른 셋	로마 제국과 신약성경
판 서른 넷	마태복음 공부
판 서른 다섯	마가복음 공부
판 서른 여섯	누가복음 공부
판 서른 일곱	요한복음 공부
판 서른 여덟	예수님 특강1
판 서른 아홉	예수님 특강2
판 마흔	사도행전1
판 마흔 하나	사도행전2
판 마흔 둘	바울 특강1
판 마흔 셋	바울 특강2
판 마흔 넷	바울의 전도 여행
판 마흔 다섯	바울의 전도 여행
판 마흔 여섯	CEO의 추천서를 받은 “오네시모
판 마흔 일곱	CEO에게 칭찬받은 “가이오”

판 마흔 여덟	공동서신
판 마흔 아홉	요한 1,2,3서와 요한계시록
판 쉰	<구약> 퀴즈 통 바이블
판 쉰 하나	<신약> 퀴즈 통 바이블
판 쉰 둘	신앙고백

위의 커리큘럼에 따른,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통독>과 <청소년 성경통독>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성경 순서는 역사 순이 아니기에 다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병호의 통 성경을 통한 역사순서대로 바라보는 성경 읽기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로 보고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그 분의 존재와 뜻과 계획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로서 성경통독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에 유익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성경통독은 성경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피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인 것이다.¹

성경통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국제성경통독원, 2008), 23-26.

읽게 될 때에 성경통독은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유익하다. 성경은 권 별 특성과 메시지를 살려 역사와 연대적 맥락에서 읽어 갈 때, 현장감과 실체감을 갖게 된다.²

울산대흥교회에서는 어린이 성경 1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큰 숲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기만 했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 그리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 그리고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성경 한 권이면, 신앙교육의 양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 충족됨과 해결됨을 알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개인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³

이제 울산대흥교회에서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의 신앙계승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먼저 교육자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통 성경적 역사 순서대로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한다.

² 배성우, “성경 읽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라 하우스 노우호 목사와의 인터뷰” *목회와 신학* 192(2005년), 148.

³ 김성곤, *복음의 절대 능력*, 78-79.

울산대흥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바이블 통 트랙스 7

조병호의 바이블 통 트랙스 7 은 통(通)박사 조병호의 성경통독 교재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이다. 조병호는 아이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하면 5세가 된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였다.

본문은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 그림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본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성경교육이 낮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성경 교육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대안을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울산대흥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통독 교재 30주 과정과 청소년 성경통독 52주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들에게 바이블 통 트랙스 7은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이 교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 그림으로 구성한 ‘바이블 통 트랙스 7’ 을 7개 트랙 20마당 40과로 구성하여 365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성경에 담긴 7개의 트랙은 성경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읽는데 도움을 준다. ‘바이블 통 트랙스 7’의 교재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블 통 트랙스 7



4

트랙1. 모세 5경의 분위기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가 설정되는 분위기이다.

창세기(원역사와 족장사), 출애굽기(민족을 이루어 탈출), 레위기(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민수기(두 번의 인구조사), 신명기(만나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는 모세5경과 왕정500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모세5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 한

4 통독원 제공.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가문을 선택하셔서 레위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모세5경에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Kingdom of Priests)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번성케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19:5~6)

하나님께서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신다.

질문.

-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

트랙2. 왕정 500년 분위기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하는 분위기이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통일왕국120년, 분단국가200년, 남유다150년)

북 이스라엘: 아모스(하나님의 공의), 호세아(신앙 바로 세우기), 요나(열방의 하나님)

남 유다: 이사야(하나님의 세계경영), 미가(사회정의, 메시아 예언)

북 이스라엘 멸망 후: 스바냐(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박국(의인은 믿음으로), 나훔(니느웨를 향한 최후통첩), 요엘(진정한 회개), 예레미야(심판을 받으라), 예레미야애가(슬픔 뒤의 소망), 오바댜(에돔 심판)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 왕정500년과 페르시아7권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은 500년의 기간을 말한다.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120년간 통일 왕국이었다. 그 후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 분단된 채 200년을 보냈다. 200년간 한 민족, 두 국가로 보낸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함으로 남 유다만 남게 된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50년을 더 유지하지만, 남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 나라의 문을 닫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남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까지를 다룬 부분이 바로 왕정 500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왕정500년이 이어진다.

이 왕정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협력과 대립의 500년 시기를 보냈다.

질문

-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 왜 예후 왕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졌는가?

트랙3. 페르시아7권 분위기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한 기대의 분위기이다.

다니엘(행정가로서 감당한 사명), 에스라(공동체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학개(성전재건 설득), 스가랴(예루살렘 회복선포), 에스더(민족을 위해 던진 생명), 느헤미야(성벽 신앙재건), 말라기(내팽개쳐진 하나님의 사랑)

*에스겔 -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선포한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7권의 책이다. 남유다 백성이 1,2,3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다. 그러던 중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들인 포로들에게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다.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도 1,2,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기록들이 바로 페르시아7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1차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둘러싼 학개, 스가랴,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발생했던 사건 기록인 에스더가 모두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7권이 페르시아7권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이 되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

질문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동시대 동족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았는가?

트랙4. 신·구약 중간사 400년 분위기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이다.

페르시아 - 헬라 -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통치(70인역) -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통치(유대분파) -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 헤롯 왕조 - 로마의 유대통치

구약과 신약 사이,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의 역사를 말한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대속물로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이 신 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분파(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난 것이다.

질문

-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 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결혼식에 바리새파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졌는가?

트랙5. 4복음서 분위기

하나님 나라가 설정(Set-up)되는 분위기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제국에서 제사장 나라를 거쳐 하나님 나라를 선포)

*4복음서와 사도행전30년 사이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행4)가 구분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요약과 압축의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만큼은 무려 4명의 저자를 동원하셔서 4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4명의 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책이 바로 4복음서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복음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모든 제국들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다. 그러나 모든 제국들은 결국 다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질문

-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여기셨는가?

트랙6. 사도행전 30년 분위기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분위기이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고린도전후서(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로마서(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사도행전30년(유대교의 박해)과 공동서신9권(로마의 박해) 사이를 로마 대화재 사건(A.D.64)이 나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체험한 열두 사도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한 30년간의 역사 기록을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부터 로마 대 화재 사건이 나기 전까지 30년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과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전파에 대해 지독하게 방해를 일삼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간이 사도행전30년이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된다.

질문

-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야고보와 스테반을 죽이고, 더 나아가 바울을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때렸는가?

트랙7. 공동서신 9권 분위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분위기이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1,2,3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 9권은 로마 제국이 로마 대화재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당시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9권의 편지들을 일컫는다. 사도행전30년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발생한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빠지는 등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든다. 결국 A.D.313년 약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질문

-왜 470명의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죽였는가?

제 VI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어린이 성경읽기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겪고 있는 학교공부와 학원교육 등의 문제해결 방안과 앞날의 장래를 위한 길잡이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통해 자녀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더불어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한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 해야 한다. 또한 성경 한 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삶의 증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때문에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핵심은 교회학교에 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들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으로써 성장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앞날의 새 포도주가 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 교회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 가야 한다. 이 사명은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성경 읽기로부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읽기를 가르치고 쉽지 않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경 교육은 어려우며,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개성이 뚜렷하며, 또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구난방의 럭비공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읽기가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을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렵고, 분량도 많으며, 재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성경읽기가 재미있어야 한다. 성경 속 이야기 중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성경읽기를 늘려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필독서로 선정한 조병호의 어린이 성경통독은 자녀들이 성경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고 들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는 청지기의 역할로써, 부모와 선생님들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립된 어린이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과 자녀로써 거듭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선행될 수 있다. 필자의 가정에서도 또한 “아빠 보다 성경 많이 알기” 라는 가훈 아래에, 성경교육을 하고 있다.

성경읽기의 방법론으로써, 조병희 통 성경 어린이 성경통독 교육방법론을 통하여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선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전체의 큰 숲을 보여주고 그리게 하여야 한다. 유대인들은 3500년 전부터 자녀를 교육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큰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쳤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큰 그림을 다양하고 깊이 있고 폭 넓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40년을 교육하였다. 40년을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터 모세에게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다.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이 제국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성경교육이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수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통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게 시행되어지길 소망한다.

부록 1.

울산대흥교회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수료하고 난 후 여덟 명의 교사를 통한 설문 조사

설문1.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응답1: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응답2: 할 수 있으면 뱃속(태교)에서부터

설문2. 교회학교 교사로서 반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은 어떠한가요?

응답1: 삶이 급급해서 요절 위주의 말씀전달만 한 자신이 부끄럽다.

응답2: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

응답3: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설문3.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응답1: 그렇지 못하다.

응답2: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설문4.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의 신앙계승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1: 프로그램도 좋지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응답2: 교회와 가정이 연계 할 수 있는 신앙교육

응답3: 학교 교육처럼 알찬 프로그램

설문5.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통해 유익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응답1: 힘들었지만, 매 주 지속적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반 아이들이 읽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하여, 성경을 읽는 계기가 되었다.

응답2: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응답3: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설문6. 어린이 성경 1독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답1: 매 년 기수 별로 모집하여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응답2: 교역자가 바뀌더라도 기본 틀의 변화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응답3: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수료했으면 좋겠다.

응답4: 어른들 과정도 신설하기를 추천합니다.

부록2.

울산대흥교회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수료한 30명의 어린이 설문조사

설문1. 성경통독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응답1: 성경읽기는 힘들지만, 설명은 재미있었다.

응답2: 하나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응답3: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응답4: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던 성경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응답5: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설문2. 4박 5일 간의 신,구약 성경통독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응답1: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살고 싶다.

응답2: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응답3: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응답4: 힘들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설문3. 어린이 성경 1독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 될 점은 무엇인가요?

응답1: 한 주간 읽을 분량인 숙제가 좀 많은 것 같다.

응답2: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가 힘들었다

응답3: 성경 게임과 퀴즈대회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응답4: 성경을 읽고 나서 보상으로 달란트를 주었으면 좋겠다.

설문4.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응답1: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게 되었다.

응답2: 부모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

응답3: 교회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

응답4: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다.

설문5.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응답1: 성경 전체를 통독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응답2: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응답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4: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설문6. 매일 성경읽기 및 성경통독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나요?

응답1: 할 수 있다.

응답2: 누군가가 점검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응답3: 계속 노력하겠다.

응답4: 시간을 정해 놓고 하겠다.

설문7. 어린이 성경 1독 학교를 추천해 줄 사람은 누구 인가요?

응답1: 부모님들께 추천 해 주고 싶다.

응답2: 가족들에게 추천 해 주고 싶다.

응답3: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추천 해 주고 싶다.

부록 3.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과 세부 주제 항목

1과: 원역사 (Premieral history), 창세기 1~11장

1.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창세기 2~3장
3. 가인과 아벨: 창세기 4~5장
4. 노아홍수 - 하나님의 눈물: 창세기 6~9장
5. 족보 - 약속의 성취: 창세기 10장
6.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2과: 족장사 (History of patriarchs), 창세기 12~36장

1.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
2.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 하나님의 친구: 창세기 13~22장
3.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23~25장
4. 순종과 양보의 사람의 이삭: 창세기 26장
5. 야곱과 에서의 갈등: 창세기 27장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Entering Egypt and Birth of the nation),

창세기 37~50장

1. 요셉의 훈련 시작: 창세기 37~38장
2. 요셉의 훈련 과정: 창세기 39~40장
3.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4. 22년 만의 형제 화해: 창세기 42~47장
5. 야곱과 요셉의 유언: 창세기 48~50장

4과: 출애굽과 제국 (Exodus and Empire), 출애굽기 1~18장

1.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1장
2. 애굽 왕자 모세: 출애굽기 2장
3.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4. 아홉 가지 재앙 - 모세와 바로의 협상: 출애굽기 5~10장
5. 유월절 - 이날을 기념하라: 출애굽기 11~12장 36절
6. 출애굽과 홍해: 출애굽기 12장 37절~15장
7.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출애굽기 16~18장

5과: 세계 선교의 꿈 - (The dream of world mission - A Kingdom of Priests), 출애굽기 19~40장

1.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2. 십계명 -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출애굽기 20장
3.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심: 출애굽기 21~31장
4.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34장
5. 성막제작 - 아름다운 동역: 출애굽기 35~39장 31절
6.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출애굽기 39장 32절~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Textbook for the school of Holy citizens)

레위기

1. 5 가지 제사: 레위기 1~7장
2.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레위기 8~9장
3. 나답과 아비후 사건: 레위기 10장
4.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레위기 11~15장
5. 속죄일 ~ 제사장의 자기반성 레위기 16장
6. 거룩은 사랑입니다: 레위기 17~22장

7.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레위기 23~27장

7과: 만나세대의 성장 (Growth of Manna Generation) 민수기

1.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민수기 1~8장
2.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민수기 9~10장
3.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VS.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민수기 11~12장
4.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14장
5. 레위인들의 반역: 민수기 15~19장
6. 프리바 사건: 민수기 20~21장
7.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민수기 22~31장
8. 요단 동편 분배: 민수기 32~36장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Graduation sermon for Manna School) 신명기

1. 역사 특강 서론: 신명기 1~4장
2.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11장
3.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신명기 12~26장
4. 이어져야 할 언약: 신명기 27~30장
5.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34장 / 시편 90편

9과 약속의 땅 입성 (Entering the Promised Land) 여호수아

1.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여호수아 1장
2. 여리고 성 정탐: 여호수아 2장
3.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라: 여호수아 3~5장
4. 가나안 점령: 여호수아 6~12장
5.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여호수아 13~22장
6.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 23~24장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The Period when Judges ruled) 사사기

1.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사사기 1~2장 10절
2.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사사기 2장 11절~5장
3. 기드온과 3백 용사: 사사기 6~9장
4.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기 10~12장
5. 사사 삼손: 사사기 13~16장
6. 사사 시대 사회상: 사사기 17~21장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Successful case of education) 룻기

1.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룻기 1장
2.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기 2장
3. 룻과 보아스의 결혼: 룻기 3~4장 17절
4. 보아스의 족보: 룻기 4장 18절~22절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Birth of Mizpah generation) 사무엘상 1~7장

1. 사무엘이 준비되다: 사무엘상 1~3장
2. 사무엘의 시대 부흥 사역 - 미스바세대의 탄생: 사무엘상 4~7장

13과 왕정의 시작 (The beginning of kings' rule) 사무엘상 8~31장

1.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무엘상 8장
2. 사울의 초기 정치: 사무엘상 9~12장
3. 변해버린 사울: 사무엘상 13~15장
4. 왕으로 예선된 다윗: 사무엘상 16~17장
5. 다윗의 도피 생활: 사무엘상 18~26장
6.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사무엘상 27~31장/ 사무엘하 1장/

(역대상 1~10장)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God' s servant David) 사무엘하, 열왕기상 1~2장

1.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1~4장
2.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사무엘하 5~6장/ (역대상 11~16장)
3.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 사무엘하 7~10장/ (역대상 17~19장)
4. 인간 다윗의 모습들: 사무엘하 11~24장/ (역대상 20~29장)
5.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1~2장
6. 다윗의 시편: 시편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Solomon and poetical books)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1.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열왕기상 3~10장/ (역대하 1~9장)
2.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1~31장
3.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 1~8장
4.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열왕기상 11장
5.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전도서 1~12장
6.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욥기 1~42장
7. 찬양의 책 - 시편

16과 남북 분열 왕조 (Divided dynasties of South and North)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 아모스/ 호세아/ 요나

1. 남북 분열: 열왕기상 12~16장 14절/ (역대하 10~17장)
2.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열왕기상 16장 15절~22장/ 열왕기하 1장/ (역대하18~20장)
3.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하 2~8장/ (역대하 21~ 22장 6절)

4. 예후 왕조: 열왕기하 9~14장/ (역대하 22장 7절 - 25장)
5.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 아모스 1~9장
6.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 호세아 1~14장
7. 요나의 사역: 요나서 1~4장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Destruction of Northern Kingdom Israel)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

1. 북왕국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 열왕기하 15장/(역대하 26~27장)/
이사야 1~6장
2.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6~17장/(역대하 28장)/
이사야7~14장
3.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8~20장/ (역대하 29~32장)/
이사야 15~39장
4. 이사야의 미래 예언: 이사야 40~65장
5. 미가의 사역과 도시 이야기: 미가 1~7장

18과 남유다의 쇠락 (Weakening of Southern Kingdom Israel)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1. 왕정 총결산: 열왕기하 21~23장/ (역대하 33~35장)
2. 스바냐의 사역: 스바냐 1~3장
3. 하박국의 사역: 하박국 1~3장
4. 나훔의 사역: 나훔 1~3장
5. 요엘의 사역: 요엘 1~3장

19과 잠깐의 징계 (Brief discipline) 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역대상, 역대하

1.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열왕기하 24장/(역대하 36장 1절~10절)/
예레미야 1~38장
2.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열왕기하 25장/(역대하 36장 11절~23절)/
예레미야 39~52장
3.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애가 1~2장
4.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예레미야애가 3~5장
5. 오바댜의 사역: 오바댜 1장

20과 포로민 설득 (Persuading captives) 에스겔

1.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1~3장
2. 유다의 징계와 심판: 에스겔 4~24장
3.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에스겔 25~32장
4.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에스겔 33~48장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The rough sketch of change of empire) 다니엘

1.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다니엘 1~5장
2. 네 짐승 환상: 다니엘 7~8장
3.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 6장
4.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5.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 10~12장

22과 성전 재건 (Restoring the temple)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1.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에스라 1~4장
2. 학개의 사역: 학개 1~2장
3. 스가랴의 사역: 스가랴 1~14장
4. 성전 재건의 기쁨: 에스라 5~6장

5.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1~10장

6. 2차 귀환: 에스라 7~10장

23과 성벽 재건 (Restoring the wall of Jerusalem) 느헤미야

1.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2. 3차 귀환: 느헤미야 2~3장

3. 성벽 재건: 느헤미야 4~7장

4. 성경통독집회와 성벽 낙성식: 느헤미야 8~13장

24과 고백과 침묵 (Confession and Silence) 말라기

1.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말라기 1장 1절~5절

2.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말라기 1장 6절~3장

3. 하나님의 침묵: 말라기 4장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The Greek Empire and the Intermediate History)

1. 페르시아 제국 (B.C.539~333년)

2. 그리스 문명

3.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B.C.359~323년)

4. 프톨레미 왕조 (B.C.301~198년)

5. 셀루커스 왕조 (B.C.198~165년)

6. 발흥하는 로마

7.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B.C.165~63년)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The Roman Empire and the Intermediate History)

1. 로마의 통치 (B.C.63년~)

2. 예수님과 가이사

3. 신약시대 로마 총독들

27과 예수님 탄생 (Jesus' birth) 마태복음

1.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1~17/ 마가복음 1:1/ 누가복음 1:1~4, 3:23~38/
요1:1~18
2. 요셉과 마리아: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56
3.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2:1~12/ 누가복음 2:1~21
4. 예수님의 어린시절: 마태복음 2:13~ 23/ 누가복음 2:22~52
5.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11:1~19; 14:1~12)/
마가복음 1:2~11 (6:14~29)/ 누가복음 1:5~25, 57~80; 3:1~22(7:18~35)/
요한복음 1:19~34(3:22~36)
6.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28과 공생애 3년 (Three year public life) 마가복음

1. 제자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4:12~25; 10:16~17장/ 마가복음 1:14~20; 2:13~17;
3:13~19; 8:27~9장/ 누가복음 4:14~6:19; 9장~10:24/ 요한복음 1:35~2:12
2.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누가복음 6:20~49; 11~12장
3.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1~34/
누가복음 8:4~21; 13장
4.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4:13~36; 15:32~39/ 마가복음 6:30~56;
8:1~26/ 누가복음 9:1~17/ 요한복음 3:1~21; 4:1~42; 6~7장
5.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마태복음 8:1~17/ 마가복음 1:21~3:12;
3:20~35/ 누가복음 4:14~6:11; 7:1~17; 8:40~56/ 요한복음 4:43~5장: 9장
6.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18~27/ 마가복음 4:35~41/
누가복음 8:22~25
7.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심: 마태복음 8:28~34/ 마가복음 5:1~20/

누가복음 8:26~39

8.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태복음 9장; 11:20~12장/ 마가복음 5:21~6:13;
10:1~16/ 누가복음 7:36~50; 10:25~42
9.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19:16~30/ 마가복음 7:1~23; 10:17~31/
누가복음 12:13~21; 16장; 18:18~43
10.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 마태복음 15:1~31; 18장~19:15/ 마가복음
7:24~37/ 누가복음 14~15장; 17장~18:17; 19:1~10/ 요한복음 8, 10~11장

29과 마지막 일주일 (The last week) 누가복음

1. 제자들의 오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32~52/ (누가복음 9:46~48)
2.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8~40/ 요한복음 12:1~19
3. 성전 청결: 마태복음 21:12~46/ 마가복음 11:12~12:12/ 누가복음 19:41~48/
요한복음 12:20~43 (2:13~25)
4.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치심: 마태복음 22~23장/ 마가복음 12:13~44/
누가복음 20장~21:4 (11:37~54)
5. 종말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24~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9:11~27;
21:5~38/ 요한복음 12:44~50
6.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1~35/ 마가복음 14:1~31/ 누가복음 22:1~38/
요한복음 13~17장
7. 잡히신 예수님: 마태복음 26:36~56/ 마가복음 14:32~52/ 누가복음 22:39~53/
요한복음 18:1~11
8. 빌라도의 재판: 마태복음 26:57~27:31/ 마가복음 14:53~15:20/
누가복음 22:54~23:25/ 요한복음 18:12~19:16

30과 십자가 승리 (Victory oh the Cross) 요한복음

1. 계약과 관계의 신비: 마태복음 27:32~54/ 마가복음 15:21~39/
누가복음 23:26~48/ 요한복음 19:17~37

2. 예수님 곁에서: 마태복음 27:55~56/ 마가복음 15:40~41/ 누가복음 23:49(8:1~3)/ 요한복음 19:25~27
3. 부자 요셉의 헌신: 마태복음 27:57~66/ 마가복음 15:42~47/ 누가복음 23:50~56/ 요한복음 19:38~42
4. 부활의 첫 증인: 마태복음 28:1~15/ 마가복음 16:1~11/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8
5. 제자들을 찾아오심: 마태복음 16:12~14/ 누가복음 24:13~43/ 요한복음 20:19~18
6.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파송: 마태복음 28:16~20/ 마가복음 16:15~20/ 누가복음 24:44~53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Unfolding Discipline Era) 사도행전 1~12장

1. 증인이 된 제자들: 사도행전 1장
2.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3. 변화된 제자들: 사도행전 3~5장
4. 일곱 집사 선출과 스테반 순교: 사도행전 6~8장
5. 사울 회심과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9~12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Paul' s first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3장~15장 35절

1. 안디옥교회의 파송: 사도행전 13:1~3
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4~14장
3.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1~35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Paul' s second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 · 후서, 갈라디아서

1.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사도행전 15:36~41
2.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18장 22절
3.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4.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1~3장
5.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1~6장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Paul' s third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 · 후서

1.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23~19장
2.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16장
3. 고린도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0~13장
4. 고린도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9장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Paul' s journey to Jerusalem)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1.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행전 20:1~3 / 로마서 1장~15:13
2.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 15:14~16장
3.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사도행전 20:4~21:16
4.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사도행전 21:17~23장
5. 가이사라에서의 2년: 사도행전 24~26장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Ecclesiology and love letter)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1.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행전 27~28장
2.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6장
3.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1~4장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Christology and miracle letter)

골로새서, 빌레몬서

1. 골로새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1~4장
2.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1장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Letters left to sons of faith)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테후서

1.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6장
2.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1~3장
3.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테후서 1~4장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Letters for the righteous fight)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1.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 1~13장
2.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1~5장
3.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1~5장
4.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3장
5. 유다의 편지: 유다서 1장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Song of victory)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1.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1~5장
2.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이서 1장
3.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삼서 1장
4. 일곱 교회를 향한 권면: 요한계시록 1~3장

5. 미래에 대한 환상: 요한계시록 4~20장
6.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22장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Foster, Charles R. *Education Congregation: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Donald M. Joy. "Why Reach and Teach Children," in Robert E. Clark, Joanne Brubaker, RoyB. Zuck, and Zuck Brubaber,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Press. 1986.

번역서적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9.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한국어서적

김성곤. *복음의 절대 능력*. 서울: 두날개, 2012.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조병호. *렛츠통 구약 천년*. 서울: 통독원, 2011.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신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0.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어린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7.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삼아라*.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3.

잡지, 신문기사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국민일보, 2012.9.3.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91, 신학과 세계, 2017, 159-186.

김영래.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88, 신학과 세계, 2016, 395-428.

박의명. “전 세계 어린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매일경제,
2017.12.15.

배성우. “목회와 신학” 192, 두란노, 2005. 148.

백상현. “목회,” 국민일보, 2017.12.12.

백상현.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게 전승하는 지름길,” 국민일보, 2017.12.12.

논문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민경민.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8.

오인천. “어린이 성경통독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8.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aehyun B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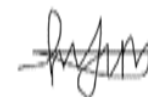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Pohang, South Korea, May 5, 1980

Parent's Names: Changgyu Bang and Miwha Ju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oung-II High School 56, Dongmun-ro 53beon-gil, Yeonil-eup,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8, 1999
Collegiate:	Young-Nam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6, Bonghoe 1-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h.B	Feb 13, 2006
Graduate:	Young-Nam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6, Bonghoe 1-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12,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aehyun Bang

Name typed

April 8, 2019

Date